



진안군, 부부의 날 맞아 모범부부 표창패 수여

진안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군은 모범 부부를 발굴하고 격려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모범 부부상은 읍·면장 추천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부부 △사랑과 신뢰로 배우자의 장애를 부부애로 극복한 부부 △다문화 가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여 평등한 가족문화에 기여한 부부 중 귀감이 되는 자들로 선발됐다.
표창자는 △진안읍 김규열, 박공남 △진안읍 서귀동, 이순덕 △용담면 배병선, 전숙이 △안천면 황의택, 송순옥, △동향면 김병기, 김윤임 △상전면 유상운, 김영이 △백운면 전병무, 안산에 △성수면 김희선, 장재수 △미령면 박승을, 정주회 △부귀면 장진문, 임일래 △정천면 신영주, 이삼순 △주천면 안봉주, 한정조 총 12쌍의 부부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세계 유일의 마이산 부부 봉처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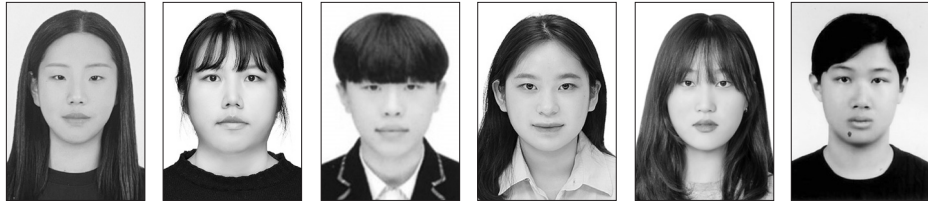


김제 백구면 지사협, 사랑 담은 짜장면 나눔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2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강인)가 맞춤형복지팀과 가정의 달을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사랑 담은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학동리에 위치한 공술 경로당에서 2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위원들이 만든 짜장면을 대접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 당부

남원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행 조은 선행 유민주 면학 신재민 예체능 김태린 국제화 전해정 장애 임세익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정

효행·선행·면학·예체능·국제화·장애 6개 부문 분야별 1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은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추천대상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6개 부문 총 20명이 접수됐으며,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국립부현유산원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6개 부문 수상자는 △효행 조은(군산중앙중학교), △선행 유민주(전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푸른), △면학 신재민(군산고등학교), △예체능 김태린(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제화 전해정(장수고등학교) △장애 임세익(완주군)이다.
효행부문 조은(군산중앙중학교, 15세)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으로 낮은 환경과 언어의 장벽을 겪는 어머니를 대신해 통역을 해주고, 어머니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설거지 등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가족간의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한 공을 인정받았다.
선행부문 유민주(전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푸른, 20세)는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지적 능력 및 기능의 부진과 여러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한결 같이 끈고 바른 품성으로 교내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유기견 봉사, 아름다운가게 일손 봉사, 노인주간보호센터 말벗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면학부문 신재민(군산고등학교, 18세)은 국어, 문학, 언어와 매체, 수학, 영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일본어 등 다양한 학업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수상 성과를 내었으며, 교육과정 박람회 도우미로 활동하여 1~2학년 학생들의 학업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자

신의 하급 노후를 전달하여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예·체능부문 김태린(단국대학교, 21세)은 국악에 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재능과 인성을 겸비하고자 노력하며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통해 실력을 쌓으며, 선배들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이음' 단원으로 선정되어 공연하였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공연 등 한국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제화부문 전해정(장수고등학교, 18세)은 미국무성 AYP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로 민간의교과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과 전북, 장수군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프 버리 영의활동에서 장수군의 유일한 청소년 통역지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통역지원을 하여 연결자 역할을 한 공이 인정받았다.
장애부문 임세익(완주군, 23세)은 6세때 장애 진단을 받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 스스로 살림을 관리하고 독학으로 기타와 그림을 배우고 연습하여 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식파트너 강사로 뽑혀 1년 동안 서신중학교, 전주 시청, 익산 서중학교, 전통문화회관 등에서 기타 연주와 노래를 하였고, 비장애인과 함께 음악 공연을 하고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기도 했다. 앞으로 자신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을 살신성인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 장애 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2014년 3개 부문 시상식을 시작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 2024년까지 총 51명의 도내 청소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만희 기자



정읍시, 내장산단풍배 전국 어울림 태권도대회 성료

정읍시는 지난 18일 신태인체육관에서 '내장산단풍배 전국 어울림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태권도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시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장애인·비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25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겨뤘다.
대회는 개인품새, 단체품새, 스피드발차기의 3종목이 진행됐으며 참여한 선수들 대부분 우수한 성적으로 고부 입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이벤트경기로 졸업기체력왕 선발전도 진행돼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보절면, 생명존중 안심마을 현판 전달

남원시 보절면은 2024년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서약서는 보절면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앞으로 생명존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으며, 전 직원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에 홍보물 비치와 더불어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 예방 및 안전망 구축할 것을 서약하였고, 보건지소는 내원 환자들에게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는 한편 홍보물 비치 등을 약속했다.
안재우 보절면장은 "주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무주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staff names like 조봉성, 김승곤, 김양욱.

Large advertisement for weight loss with text: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and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